



현장탐방 고객감동 현장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 경남지점

# 고객과 시작·끝을 함께하는 동반자 될 터

천연추출물 생물농약 1호 '그린졸 입제' 등록, 친환경회사 이미지 굳혀  
제품 정직성 바탕, 판매위주 보다 동고동락 통해 깊은 믿음 줄 것

대한민국 최고의 중화학 공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울산과 정열의 도시 부산이 공존하는 곳 경남. 농업과 공업, 소비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상공(都農商工)지역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리스타 라이프사이언스 코리아(주) 경남지점(지점장 문준윤·39)을 찾아 현황을 들어 보았다.

## 제품정보력 뛰어나 벤치마킹 되기도

이곳은 지난 2002년 지점분리 후 2003년부터 친환경 필드마케팅을 도입하여 농약 및 친환경제품 사업에 주력하면서 우수한 친환경 회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곳이다. 특징이라면 여타 회사와는 달리 별도의 지점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점장을 비롯, 필드마케팅을 포함한 3명이 주요 거점지역인 울산, 부산, 진주에 배치되어 현장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불필요하게 사무실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문준윤 지점장

“단 10분이라도 현장의 고객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현장에서 오직 고객과 늘 함께 생활하며 애환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젊은 패기로 단단히 무장된 문 지점장의 소회이다.

이런 업무특성상 그 어느 지점보다 끈끈한 동료애와 애사심이 적지 않다며 동료들을 추켜세운 문 지점장은 “영업과 세미나 능력을 겸비한 팀원들에게 지역권한까지 일임하였다. 각자의 분주한 일상으로 비록 머리를 맞대는 마라톤 회의기회는 많지 않으나 서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에 있어서는 수시로 소통하고 앞장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소수정예 엘리트 군단의 자부심을 드러낸다. 이석철 주임은 필드마케팅과 영업을 두루 경험한 문지점장에 대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특성 및 사용정보 제공 능력이 뛰어나 간혹 타 지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지점 및 일선 현장에서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준다”며 거른다.

온난한 기후로 연중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경남지역은 임야지역의 과수농업과 공업도시 근교의 원예농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과수로는 거창 밀양의 사과, 울산 하동 진주의 배, 김해 창원의 단감, 고성 사천 남해의 참다래를 꼽을 수 있고 도시 근교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단위 하우스 원예시설이 있다. 문 지점장은 지역 농업인들의 인식에 대해 “이곳 농업인들은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에 있어 자체적으로 연구·시도함으로써

전국에서 신기술 개발 접목이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신제품 적응력 또한 매우 높다”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지역민을 대하는 자부심을 드러낸다.

농업인과 시작과 그 끝을 함께 하는 것이 곧 고객감동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문 지점장은 “농가의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고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려면 무엇보다 제품의 정직성이 최우선이다. 판매위주 보다는 각 지역 및 작물에 적합한 제품 사용방법을 고객과 함께 연구할 때 자사 제품에 대한 깊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며 나름의 영업 철학을 술회한다.

### ‘그린졸·플메트’ 지속성장 전망

최근 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태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친환경사업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미 친환경회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아리스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시범포 및 작목반 세미나를 개최, 지역 대표 농업인들과 1:1 면담을 통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서는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레작목반 회원인 황상길(48)씨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요구 부응에 발맞추어 금번 시범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그린졸 입제는 벼물바구미 방제에 있어서 화학농약 못지않게 방제력이 뛰어나 친환경 쌀 생산 및 토양 수질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적지 않은 신뢰를 드러낸다.

주력 판매제품에 대해 문





지점장은 “그린졸 입제는 국내 유일하게 천연추출물 생물농약 1호로 등록된 제품”이라면서 “벼 근권에서 서서히 용출되어 유충의 생장 및 뿌리 섭식을 억제하여 피해를 예방하며, 유효성분은 작물전체로 이동하여 성충에 의한 섭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폴메트 액제’에 대한 자랑도 이어간다. 경남은 전국 참다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참다래 뿐만 아니라 포도 등의 비대축진과 수박, 참외 등에 대한 착과축진의 효과가 우수하

여 고품질 농작물 생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식물생장조정제”라며 제품의 우수성을 역설한다.

최일선에서 바라본 유통질서에 대해 문지점장은 “최근 난립하는 중국밀수품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부 유사제품으로 인해 오히려 정품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모순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효과가 검증된 아리스타 제품의 높은 신뢰와 친환경정책으로의 시정 변화에 발맞추어 ‘관납사업’의 영역이 넓혀져 지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보조사업의 혜택이 농가 영농비 절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에 찬 시장전망을 내놓는다.

끝으로 도심지 소비자들에 대해 문지점장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가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등 노심초사해 한다. 그들의 소중한 노력의 산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라며 말을 맺는다. Y

## 현 장 인 터 뷰

### ■ 현재의 영농규모 및 재배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이곳 울주군 웅촌면에서만 참으로 오랫동안 농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수도작 20,000㎡, 하우스 육묘재배가 주 소득원입니다. 5~6월 모이앙시기에 이 지역 저온현상으로 생육저하만 나타났을 뿐, 해마다 문제시 되는 문고병, 도열병 등의 큰 병해충 발생은 없었으며 물달개비 저항성 잡초 또한 발생이 되지 않은데다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큰 태풍도 없어 평년작 이상의 수확이 예상됩니다.

### ■ 일선 농업인으로서의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추석선물용으로 출하된 ‘웅흥동천쌀’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어 품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간에는 작물보호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올바른 제품의 사용은 우수농산물의 수확량 증대와 생태보호도 함께 이루어져 고소득창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자재입니다.

### ■ 아리스타 제품 사용소감은?

아리스타 지역특화시험사업에 동참하면서 접하게 된 생물농약 ‘그린졸 입제’는 벼물바구미 방제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양직전 약제처리 후 중기 때 제초제 방제만 이루어지면 별다른 걱정 없이 수확때까지 일손을 덜어주는 약효가 입증된 제품입니다. 점차 이웃 지역민에게도 추천, 사용토록 하여 생물농약의 인식 확대에 일조 하고 싶습니다.



황상길(48·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